



전주매일

2016년 3월 29일 화요일(음 2월 21일) 제152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4.13 총선 D-15

전주권 총선, 야권 개편 향한 핵심 포석

김성주 vs 정동영 '박빙'… 전주 병

여론조사결과 오차범위 내 접전
정 후보, 김 후보 지지율 역전
정동영, 유리하다 느껴질 경우
갑·을 지역구 지원 가능성

당대 당 싸움 치열

반드시 깃발 꽂아야 할 곳
국민의당 3인방 공격모드에
더민주 3인방 방어전 큰 관심사
당대 당의 바탕 끝 싸움 예고

4.13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전주권 선거구가 국내 야권 개편을 향한 정치권의 핵심 포석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지역 후보를 선거판세가 전북 정치는 물론 야권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 수 있는 전략적 폭발력을 갖고 있어 양 당 입장에서 전주권은 반드시 깃발을 꽂아야 할 필승 지역으로 꼽고 있다.

이 가운데 대선후보 출신 정동영 전 의원과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전주병의 관심이 뜨겁다.

중인일보는 28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파 실시한 4·13 총선 전주병의 4차 여론조사결과 정동영 전 의원이 36.6%로 김성주 의원(33.9%)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김성진 후보는 5.7%의 지지율을 보였다.

전주병 정당지지율은 더민주(33.3%)가 국민의당(24.2%)보다 높았다.

종전까지는 김 의원이 앞선 모습이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시간이 흐를수록 정 전 의원의 근질긴 추격전이 이어지면서 결국 처음으로 정 전 의원이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선일보와 여론조사회사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선전화면접을 실시한 전주병 20대 총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 결과를 24일 밝혔다.

발표된 결과에서 전주병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37.4%를 얻어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32.4%)를 5%포인트 앞섰다.(성인남녀



만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공천대회에서 김무성 대표와 후보자들이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만세를 외치고 있다.

53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 응답률 11.2%)

앞서 국민일보·CBS가 지난 8~10일 리얼미터·조원씨엔아이에 의뢰해 이 지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4.4% 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김 의원이(38.9%) 정 전 의원(38.6%)을 간발의 차이인 0.3% 포인트 앞선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달 23일 중인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4.0% 포인트)에서는 정 전 의원 지지율(31.4%)이 김 의원(40.3%)보다 크게 낮았다.

전주병의 초접전 상황은 야권개편과 맞물려 전북정치 자존심 회복을 원하는 지역민의 열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주병은 전주 선거구 3곳 중 2곳을 가져느냐 1곳에 머무느냐, 혹은 전승·패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지로 평가되고 있다.

김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전주병은 재선 가능성이 더민주당 시수를 위해 반드시 지켜

야할 지역구인 반면 정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전북정치 부활의 기치를 내걸고 자신의 정치 운명을 건 곳이다.

특히 정 전 의원은 지난 선거운동에서 보듯 어느 정도 자신이 유리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갑파·을·병선거구를 넘나들며 특유의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의원 간 장기간 이어지는 초접전 상태로 자기 지역구를 등지고 다른 지역구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되질 못하는 단단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

정 전 의원 측에서는 전주병을 토대로 갑파을에서 국민의당 후보자가 많이 당선될수록 당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키울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더욱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일기기에 선거 판세 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동영·김광수·장세환으로 이뤄지는 국민의당 측의 공격에 더민주당 김윤덕·최형자·김성주의 3각 편대가 어떻게 방어할 것 인지도 흥미로워진다.

/특별취재반

▶ 매일 INDEX

2면 더민주 김제기초의원 탈당 국민의당 입당

3면 여야 전북 협안 맞춘 선거 공약 구체화

6면 반려동물용품 매출 '훌쩍 올라'

14면 "내가 바로 무주농업의 주인공"

누리과정 예산 지원 명문화
정부-여당, 특별회계 추진

"용도 특정해 지원토록 할 것"

새누리당과 정부가 28일 중앙정부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추가해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현성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지정하기로 했다"며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현성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2017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교육청은 동 예산을 누리과정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현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 정점위 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교문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부용주 기자

전은, 외국인 해외송금서비스 협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태)은 전자금융업체인 브이피(주) 대표 차영균과 28일 '외국인 간편 해외송금서비스'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전용 간편 해외송금서비스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개발에 착수했으며 5월 중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행 백종일 부행장은 "기존 해외송금 서비스 보다 저렴한 송금수수료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특히 해당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결제에 이용되는 본인의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한 인증서비스와 디지털 지원을 통해 송금 시 공인인증서 사용과 의사소통 문제로 겪었던 어려움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북은행은 펀테크 시대에 맞춰 브이피(주)는 FIDO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인증 등 보안은 강화되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킨 인증서비스를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확대할 예정이다.

/정명주 기자



8천만 세계 태권도인들의
함성을 태권도원으로!

73억 세계인들의
열기를 무주로!

2017 MUJU WORLD CHAMPIONSHIPS TAEKWONDO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 2017년 6월 22일~30일 장소: 태권도원